함평 탁주·담양 과자 日에 첫 수출

일본인들 입맛·안정성 만족

장흥 무산김, 美에 30억 수출

무농약 막걸리와 친환경 과자, 무산김 등 전남산 친환경 가공품들이 잇따라 일본과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과자와 사케의 나라 일본으로 처녀 수출길에 오르는 제품은 무농약 찹쌀로 만든 함평 '자희향 탁주'와 유해 첨가물 없이 친환경 농산물로만 만든 담양의 '착한 과자'.

자희향 탁주는 지난해 12월 일본 무역업체인 SFC사와 체결한 수출계약의 후속 조치로 오는 13일 1차로 탁주 1000병을 첫 수출, 현지 음식점과 주류판매점을 중심으로 토종 사케와 정면 승부에 나선다.

자희향 탁주는 예로부터 전승돼온 '석탄향'(惜歎香·향기가 좋아 차마 삼키기 아쉽다) 전통주를 복원한 술로, 100% 무농약 인증 찹쌀과 누룩으로만 빚은 프리미엄 막걸리다. 식품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통 제조방법으로 90일간 항아리에 숙성시켜 요거트의 걸죽한 질감과 단맛·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진득한 국화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 기준 1병당 1만2000원으로 시중 일반 막걸리에 비해 비싼 편이나 품질이 뛰어나 일본의 고급 소비층과 여성들의 취향에 맞아 현지에서 사케와 대등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담양 에코 농공단지에 있는 '착한 과자' 생산업체인 ㈜산들촌도 1년에 40만 달러(4억6000만원 상당)씩 3년간 수출하기로 일본 미야기 생협과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길에 오른 과자는 '우리아이 착한 양파스낵' 등 3가지로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어 까다로운 일본인의 입맛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만족시켰다.

산들촌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밀을 주원료로 색소와 향료, 방부제 등 일체의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며 2009년에는 제과업체로는 드물게 유기 가공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중국 등지에 2만 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공장설립 4년 만에 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기농 가공시설을 신축, 이전했다.

장흥군도 최근 미국 현지에 유통망을 보유한 수출업체와 30억원 규모의 무산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1일 부산항에서 첫 물량을 선적했다. 수출 규모는 30억원으로 내년에는 물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흥 무산김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김 생산 어업인 110명이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한후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이어 USDA(미국농무부) 국제유기농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단체표장 등록 등 일반 김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시 미화원 채용시험 '바늘구멍'

5명 뽑는데 응시자가 85명, 경쟁률 17대 1

전문대졸 이상이 34%… 심각한 취업난 반영

나주시가 5명을 뽑을 예정인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85명의 응시자가 몰리면서 1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했다.

나주시는 5명의 환경 미화원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과 체력시험·면접 등 3가지 방법으로 공개 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환경미화원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채용공고를 한 결과 5명 모집에 85명이 접수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29명(34%), 20대도 23명을 차지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함을 보였다.

시는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30㎏ 짜리 모래 마대를 들고 30m 왕복달리기를 비롯해서 윗몸 일으키기, 30㎏ 짜리 모래마대 오래들기 등의 체력테스트를 거쳤다.

시는 나주에 살고 있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주는 등의 서류심사에다 각 종목별 체력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10명의 2차 합격자를 발표하며,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숭어낚시는 훌치기로 낚시꾼들이 11일 강진군 마량면 바닷가에서 일명 '훌치기 낚시'로 숭어를 낚고 있다. 훌치기 낚시는 미끼없이 여러 개의 갈고리바늘을 달아 고기를 훌쳐서 낚는다. 〈강진군 제공〉

장성경찰, 눈높이 맞춘 학교폭력 예방교실

장성경찰서(서장 이윤)는 최근 문향고등학교에서 재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실시했다.

이 서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의 소통(함께하고 하나가 되자)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적극적인 상담과 신고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서장은 "즐거운 학교는 친구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경찰업무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장성경찰은 3월 신학기 집중적으로 관내 초·중·고교 2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흥 키조개 흑진주로 화장품 만든다

전남해수원, 바이오랜드 등과 업무협약

전남도가 장흥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키조개에서 기존 진주가루보다 우수한 흑진주가루 추출 기술을 개발, 화장품과 의약품 등 기능성 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지사, 박찬복 ㈜바이오랜드 대표,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키조개 흑진주가루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내 시판 화장품에 함유된 진주가루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키조개에서 기존 진주가루보다 우수한 흑진주가루의 생산기술을 개발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키조개는 조갯살만 식품으로 활용하고 껍질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적 소재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폐기물 자원화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해양오염 방지 등 3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읍역사 신축 "원안대로 추진하라"

시민대책위, 원안사수 결의대회… 지하차도 개설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KTX)정읍역사 신축과 지하차로 개설 재검토 방침에 반발하는 정읍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읍역사 신축·지하차도 개설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욱·김인권·김명자)는 지난 8일 정읍시장, 시의원, 대책위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청에서 원안 사수 시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역사신축에 관한 경과와 쟁점 사안을 보고받은 뒤 역사·지하차도 사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백지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해양부 등 11개 부처에 발송하고 철도시설공단을 릴레이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정읍의 미래성장 동력인 정읍역사와 지하차도의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며 인접 7개 시·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호남을 차별하는 백지화 방침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KTX 정읍역사와 지하차도를 신축하기로 확정했지만, 지난 1월 예산절감과 예상 이용객 저조 등을 이유로 현 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 정읍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SSM "월 2회 휴무 수용"

영업 제한 첫날인 어제 모두 문 닫아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7일 전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전주지역 SSM들이 11일 모두 문을 닫았다.

이날은 전주시의회가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조례가 적용된 첫날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의 SSM은 모두 18개이며, 사전에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모두 휴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SSM들은 며칠 전부터 매장 입구에 휴무 안내문을 내걸었으나 미처 알지 못한 채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SSM들이 일제히 의무휴업을 수용한 것은 최고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담에다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을 규정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날 정상영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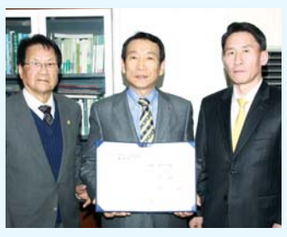
'반쪽' 의무휴업인 탓에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이 얻은 반사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SSM의 휴무 여부를 파악하고 문을 연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

市-국가브랜드위 업무협약… 행정·재정적 협력



정읍시가 칠보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정읍시와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지난 9일 칠보 무성서원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성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가칭)을 구성하며 등재 이후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정읍 칠보 무성서원과 장성 필암서원, 경북 안동 도산서원 등 전국 9개 서원을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시켰으며, 오는 2013년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 무성서원은 우리나라 유학의 비조로 추앙되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신라말 태산군수로 재임하면서 쌓은 공적을 기리고 향사하기 위해 세운 태산사에서 유래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역사와 함께한 아름다운 익산여행

市, 특색관광상품 개발… 수도권 남녀 320명 방문

'서동요'는 1400여년전 백제 서동왕자와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이 맺어져 백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게 해 준 역사적인 노래다.

수도권의 청춘남녀 320명이 지난 10일 백제의 고도(古都)이자 '서동요'의 본고장인 익산을 찾았다. 이들은 익산 서동공원(마한관)과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북부시장 그리고 원광대 캠퍼스를 방문, 서동선화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백제 무왕과 왕비가 남겨놓은 역사적 발자취를 느끼며 색다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조각상이 있는 서동공원에서는 청춘남녀가 함께 굴렁쇠 굴리기와 사랑의 고리던지기 등 전통 놀이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가 서울지역 여행업체와 함께 '서동요'를 주제로 하고 TV프로그램인 '짝'을 모티브로 기획한 이벤트여행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역사문화 관광지로만 인식되었던 익산의 여행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이벤트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익산의 역사에 사랑 이벤트를 접목한 이번 상품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익산관광의 원년'으로 삼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국내 주요 여행사와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시 현안 토론회 주요사업 성과 거둬

남원시가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목요일 현안토론회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는 ▲남원시정 핵심 정책기조 사업 ▲부서간 연계 사업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국가정책 변화로 시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정립과 애로사항 및 문제점 사전 파악, 폭넓은 대안 등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장 위치를 섬진강변에서 함파우 유원지로 조정하도록 문화부에 건의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전담조직을 별도 신설하고 인구 10% 늘이기 사업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신

전주 자원봉사센터 '대학생 재능봉사단' 운영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대학생이 저소득 청소년의 공부와 취미활동을 돕는 '대학생 재능봉사단'을 운영한다.

봉사단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어·영어·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의 학습지도는 물론 음악·스포츠 등의 취미활동을 함께하며 실기를 가르쳐준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은 청소년의 '멘토'(mento)가 돼 학교와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도 상담해준다.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자원봉사는 될 수 있으면 주말에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월명동·나운동 침수예방 저류조 설치

군산시는 상습 침수지역인 월명동·나운동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우수 저류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저류조 시설은 강우강도 50년 빈도의 강우량(시간당 70㎜)을 고려하고, 침수지역의 주요 배수구조를 검토해 침수피해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로 월명동·나운동 지역의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중 시설공사를 발주해 내년도 우기철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동부화재, 자전거보험 계약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는 정읍시는 지난 8일 동부화재와 자전거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이 이날부터 1년 동안 보험혜택을 받는다.

정읍시민은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때 최고 5000만원을 받는다. 또 4주 이상의 입원진단을 받으면 40만~100만원, 1주일 이상 입원하면 4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를 처리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보험사가 지원한다. 정읍시는 도내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여성공무원 출산장려 근무여건 개선

지난해 12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김제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펼친다.

시는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전용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을 임산부 직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임산부의 피로를 줄이고 컴퓨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조만간 시청에 모유 수유실과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